**2009. 8. 19**

**Bruce Gagnon 초청 강연**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인가정에서 태어나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자라왔습니다.

아버지를 똑 닮은 젊은 보수파로서, 저는 1971년에 미 공군에 입대하여 캘리포니아의 베트남파병 공군기지에 배정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베트남참전을 위해 군인들이 몰려왔었지요. 커다란 미 공군 수송기가 오면 부상병들과 죽은 시체 가방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때문에 군부대 밖에서 반전시위들이 자주 있었지요. 그 시위들의 규모는 때론 아주 작았지만, 군부대 안에서 병사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해 토론을 벌이게 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때에 제가 처음으로 평화운동가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역사적인 1982년 6월 12일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날이 거의 백만명의 인파가 UN 앞에 모여서 비핵화를 외쳤던 날입니다. 유엔 군축 특별회기에서 국제관계에서 계속되는 폭력과 증가하는 핵군축 문제를 다루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 6월 12일에 플로리다 올랜도의 제 집에 있었기에 행진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TV로 집회를 시청했습니다. 시위가 끝난 후, TV에서 대니얼 그래햄 중장이 나온 회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때 그래햄 중장은 로널드 레이건 미 전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 (스타워즈) 계획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래햄 중장의 연설이 끝난 후의 질의응답 시간 중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중장님, 듣기에 오늘 뉴욕시에서 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군축을 외치며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중장이 서슴없이 답했습니다. “아니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뭘 모르는 거죠.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둡시다.”

이 말을 들은 저의 놀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당시 전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때 전 군비 확장 경쟁이 상공을 넘어 우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미전역에 핵무기 동결 운동이 퍼지고 있을 때에, 전 플로리다 주 평화 및 정의 연합 본부의 책임자가 되어 전주적인 반핵 운동 사업을 일으키는데 일조했습니다. 또한 전 그래햄 중장의 스타워즈 계획안에 대해 공부하고, 일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플로리다에 제가 살고 있던 지역 근처에는 마침 케네디 우주센터와 미 항공우주국이 있었기에 그 곳에 살고 있었던 저와 몇몇 사람들은 우주전쟁 계획에 대해 빨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언제든 그 곳에서 군 관련 위성들이 발사될 때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이던트 핵미사일이 처음으로 시험될 때도, 나사가 아주 유해한 플루토늄을 실은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전 “민간” 항공우주국의 실상은 “민간겸용” 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모든 우주 발사 임무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용의 우주 임무 발사체라지만, 동시에 우주 무기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1992년에 이르러, 플로리다 주 평화 및 정의 연합 본부는 플로리다의 우주관련 사업 이슈에 깊숙이 연관되어져서 더 많은 아군을 찾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미국 우주 총사령부가 위치한 콜로라도 주의 “우주평화를 위한 시민들” 이라는 단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현재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and Nuclear Power in Space가 탄생되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우리는 미군의 우주전이 영국, 그린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및 세계 각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각지에 있는 지역단체들은 곧 글로벌 네트워크에 동참하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에 있는 평화네트워크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두 개의 단체를 포함해 전 세계에 150개의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93년에 우리는 미 우주사령부 우주계획의 세부사항들을 모아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지배자” 는 콜로라도에 위치한 미공군우주사령부의 50번째 우주날개의 로고입니다.

1997년 클린턴 행정 때 만들어진 “Vision for 2020"라는 중요한 계획안에는, 우주사령부가 미국이 우주를 ”지배 및 독점“ 하게끔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주지배는 미국의 우주 진출을 확고케 하며, 또한 우주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다른 국가로 하여금 우주를 쓰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

육해공 각각의 미군기구들이 이제는 그 각자의 우주사령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 사령부가 “우주 이용”을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우주를 무기 발사의 공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달과 화성 그리고 운석들에서 귀중한 광물자원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달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달에서 헬륨-3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 까지 달 궤도를 완주하고, 2025년까지는 달착륙선을 만들려 합니다. 과학자들이 믿기를, 헬륨-3가 달에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연료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비교적으로 이는 석유회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지요. 전 세계가 평화적이고 협동적인 우주 개발을 고집하지 않는 이상, 행성들을 향한 이 새로운 질주는 지구에 또 다른 분쟁거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납세자들의 돈은 국가를 위한 로켓을 만드는 데 쓰일 것이고, 우주관련 회사들은 “하늘의 자원을 캐는”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려 할 것입니다.

미 우주사령부와 여러 용어의 정의에 대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방위 지배”의 뜻은 미군이 모든 분쟁지역에서의 모든 전쟁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육군은 땅 위에서,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그리고 우주 사령부는 우주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만약 미국이 이러한 통제를 할 수 있다면, 몇몇의 다른 국가 역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 우주사령부가 말하길, 미국이 반드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우주로 진출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부”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우주 사령부는 미국이 다른 경쟁국들의 우주 재산, 즉 위성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주 무기를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군 위성이 지상의 전쟁을 총괄함을 알고 있습니다. 2003년 펜타곤이 “충격과 공포” 이라크 침공을 시작했을 때, 무기의 70%가 우주위성을 통한 유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이라고 불리는 기체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실은 미국 군부대 터미널에 앉아있는 조종사에 의해 조종되는 것들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정도 밖에 안 나는 시간 차이로 조종사는 기체 부착되어 위성과 연결된 카메라로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을 살피며 가공할 파괴의 미사일들을 발사합니다.

미국 이외의 어떤 나라도 전시에 우주에 접근하지 못 하게 될 것임은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에게 있어 아주 자극적인 생각입니다. 유럽 연합은 그 응답으로 갈릴레오라는 그들만의 군사위성 및 표적제어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스타워즈의 주목해야 할 점은 개발 비용입니다. 우주의 군사화는 지구상 생명체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주 비싼” 군비 경쟁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항공 우주 산업은 스타워즈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산업 계획이 될 것이라고 뽐냅니다. 미국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미국 혼자서는 이 사업의 비용을 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동맹국들이 함께 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현재 펜타곤의 최 중요 임무는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독일, 인도 및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계획에 동참하게 하여 값비싼 스타워즈 개발 비용을 분담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많은 사회적, 환경적인 요구들을 묵살하거나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오늘날 미국이 PAC-3와 THAAD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 세계로,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펜타곤이 자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위 지배” 계획에 쓰일 새로운 세대의 무기들을 지원하기 위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그린란드, 노르웨이 및 여러 곳에 있는 미국의 스타워즈 레이더 시설들이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우주기술무기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레이저 무기체계나 신세대 공격용 위성, 사이버전쟁 체계, 우주 군함, 모형 무인항공기 군집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대체 우주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핵군축을 향한 희망에 위협이 되는지, 제가 위의 프로그램 중 한 가지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펜타곤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인 제임스 카트라이트 장군이 최근 단정 짓기를, 현재의 재래식 폭탄들은 “전 세계적 공격 임무”에 대응하기엔 “너무 느리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했다. 카트라이트 장군은 “적절힌 전 지구적 공격”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채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장군이 밝히길 미군은 우주를 경유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목표를 강타할 수 있는 “초음속”무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난 수년간 미 우주사령부는 매년마다 컴퓨터 전쟁 프로그램으로 그러한 일련의 공격을 시행해 왔습니다. 2016년에 맞추어져 있는 펜타곤의 미군 우주 기체는, 비행기처럼 이륙하여 우주 궤도에 올라 중국의 핵무기 시설들을 한 시간 안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반격을 시도하여 미 본토의 서부를 강타할 몇 십 개의 핵무기를 발사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대만에까지 설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중국의 서투른 시도를 저지할 것입니다. 방어체계로 일반에게 판매된 “미사일 방어” 체계는 사실상 펜타곤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미국의 일차공격으로 중국 핵시설의 요체를 파괴한 후의 방어막이 될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중국의 수뇌부가 이 전쟁게임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개발되는 기술들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가로막고 있는 불의 막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기술은 바로 선제공격의 원칙을 가능케 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중국과의 진지한 핵무기 폐지 교섭을 향한 희망이 우주의 군사화 및 무기화로 인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이 된 것입니다.

우주 사령부의 2020년 또는 2016년 미-중 전쟁 계획에 대해 듣는 몇몇의 사람들은 그것들은 단지 이론적인 개발인 뿐이고, 글로벌 네트워크는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9.11 테러가 난 직후에, 미국 중서부에 네브라스카 오마하에 있는 전략사령부는 그 자체적인 임무와 역할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몇 년 간 전략 공군 사령부는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펜타곤의 유명한 핵미사일 사령부였습니다. 현재의 전략 사령부는, 또는 스트렛콤(StratCom), 새롭고 더 공격적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Nebraskans for Peace의 주 책임자인 Tim Rinne은 스트렛콤의 변천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연방에 설치되는 미사일 방어라고 불리는 것은 실상 스트렛콤이다.” 스트렛콤은 지난 2008년 2월에 떨어지는 미국위성을 태평양에 있던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미사일 방어 체계로 쏘아 맞추는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파키스탄 영공의 CIA Predator 무인항공기들은 스트렛콤의 정찰위성기의 정보를 받아 날아다니며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사와를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의 파인갭과 뉴질랜드의 와이호파이에 있는 Echelon 국가 보안 기구국은 스트렛콤 정보망의 일부로서 모든 전화기와 이메일을 도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해 남부에서 있었던 미국정찰선과 중국 해군함의 충돌은 스트렛콤의 임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제공격, 북한남침, 그리고 중국 전면포위의 임무를 맡은 스트렛콤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군대는 이제 우주 기술과 융합되어 있습니다. 스트렛콤이 지구상의 모든 전쟁을 관리하는 것을 “네트 중심”이라고 일컫습니다. 우주의 군사위성을 통해 미국은 지구상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곳이든 공격 목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왜?” 라는 질문을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광적인 핵 군비 확장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미국은 우주의 군사화를 꾀하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존스 장군은 NATO의 전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2006년에 존스 장군은 언로에 밝혔습니다. “나토는 현재 카스피안해 근처 지역의 석유와 가스 확보를 위한 특별계획을 개발중이며,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이 계획을 동유럽과 아프리카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서 미국의 경쟁자가 누구일까요? 펜타곤은 감소해가는 석유, 자연가스, 석탄, 우라늄 및 다른 자원들을 향한 국제적인 경쟁을 이유로, 중국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4월 미 육군 장군이며 한미사령관인 월터 샤프는 한-미 동맹은 북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린치핀이라고 워싱턴의 미상원국방위원회에 말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의 지상 기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평화운동가들은 이 미사일 체제의 진짜 목표는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의 변화는 단연코 북한의 군 확장 제어를 빌미로 한 중국 견제와 주변 지역의 공격 전략을 위한 최 중요점입니다. 제가 믿기론 북한의 최근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은, 미국의 “전방위 지배”전략을 두려워하는 불안정한 국가의 처절한 몸부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북한의 그러한 반응은 잘못된 것이었고, 다만 미국으로 하여금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는데 정당성만 주었을 뿐입니다.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으로, 미국은 이미 6월 29일 캘리포니아 밴더버그 AFB에서 태평양을 향해 대륙 간 핵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8월 23일 또 하나의 미사일발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남한이 우주로켓을 쏘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이 쏜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남한은 이미 10개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고, 2015년 까지 9개의 추가적인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단 한 개의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겠다고 할 때는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날뛰었었죠.

이제 우린 남한과 일본이 북한을 향한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오직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동맹이 깨진 후 에야만 이루어 질 것입니다.

현재 주일 및 주한 미군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중재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아마도 남한과 일본의 군사가 미국과 나토에 병합되어 세계 곳곳에 쓰이게 되는 것일 겁니다.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사일 방어 체제 설치가 핵무기 폐지의 위협이 될 것이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장관 로버트 게이츠의 지난 4월 의견은 상당히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린 현재 더 많은 이지스함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탑재하도록 개조하고 있습니다.”

메인 주 배스에 살면서 나는 미-중간의 해군경쟁에 대해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을의 미 해군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탑재한 이지스 함을 건조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메인 주 출신의 두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한 이지스함 건조를 위해서 더 많은 펜타곤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바마는 2010년에 4%의 군비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 또한 군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핵 지니를 병에 다시 집어넣어야 할 때라고 말할 때 왜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군비를 확장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모두 이 허약한 지구의 화석 연료는 감소해 가는 자원임을 알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매장된 석유가 거의 다 바닥나서 이젠 그 희소성이 바닥칠 일만 남은 이때에 전 세계의 석유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명한 저술가 노암 촘스키가 말하길,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제 오직 “세계정복의 수단”이 된 전 세계의 석유자원을 통제함에 있다“고 합니다. 유럽, 중국, 인도, 그리고 다른 최근 일어나는 시장들을 미국에 의존하게 하고 미국 정책에 동의하게 하는 방편이 바로 그들이 필요한 석유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추락하는 와중에도 펜타곤이 말하길, “누구든 세계 경제의 엔진을 관리하는 자가 통제자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80%의 석유를 말라카 해협에서 들여옵니다. 만약 어떤 경쟁자가 군사적으로 그 해협의 길목을 막고 중국의 석유 수입을 졸라맨다면, 중국의 경제가 인질로 잡힌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를 배로 늘리는 것이 과연 북한을 향한 견제인지, 아니면 미국주도의 군사적 통제전략을 위한 부분적인 조치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Zbigniew Brzezinski의 책 “The Grand Chess Board"에 쓰여진 바에 따르면, “미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목표는 유라시아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주도는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세를 점하느냐에 직결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아프가니스탄에 정치적인 영향을 통해 전략적인 깊이를 얻는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안 해를 잇는 파이프라인 시공의 혜택을 입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Brzezinski는 또한 최근 오바마 대통령 출마 때의 외교정책 안보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연가스와 석유매장량을 가진 나라이다. 미국은 최근에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군 기지를 신설했고, 곧 이어 알바니아에도 군 기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나토는 동쪽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 방향, 러시아 국경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다음으로 국제 나토 연합군에 포함될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나토 조약 조항문 5번이 분명하게 명시하길, 만약 하나의 나토국가가 공격을 받는다면 나토에 속해 있는 모든 국가는 의무적으로 공격받은 국가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인 즉 만약 조지아가, 나토에 병합되도록 미국이 힘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나토회원국들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16일 로마에서 있었던 “Overcoming Nuclear Dangers" 회담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개막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국제관계의 비무장화의 필요를 역설하지 않고, 군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방지하지 않는 이상, 비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향한 그 모든 말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미사여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언급하겠습니다. 최근 한 독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서독에 대해 언급하며 1990년 독일 통일 후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나토는 동쪽으로 단 1센티미터도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했음을 말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이 약속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서방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러시아가 환상에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이 거대한 체스 판에서 미국의 움직임에 가만히 않아 있지 않습니다. 2007년에 중국은 탄도 미사일을 사용하여 작동되지 않는 중국 위성들을 쏘아 파괴하며, 그들도 “위성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위시했습니다. 이는 지구를 돌고 있는 우주 파편의 증가로 인한 위험을 배가하는데 공헌하고, 훗날 어떤 나라로 하여금 지구를 덮고 있는 우주쓰레기 지뢰들로 인한 위험들로 로켓을 쏘아 올리지 못할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의 틀 아래 우주 군사 무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을 채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새로운 결의안 채택에 지지를 표명했으나, 오직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는 이를 기권했습니다. 이는 비단 클린턴 행정부 뿐만 아니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진정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을 원한다면, 우주 무기의 범지구적 금지를 위한 협상에 돌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모스크바에서 있은 미-러간 핵무기 협상에서 미 NSC 러시아담당 선임국장은 “우리는 러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우리는 NATO 확장 및 MD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어떠한 양해도 구하지 않을 것이고, 거래도 할 용의가 없다”고 표명했습니다.

7월 6일 미-러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잠정적 합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나라의 핵 관련 정책은 아주 “미미한 변화”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는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이란 및 북한에게 핵무기의 폐해에 대해 설교를 늘어놓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시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엄포를 들을 때마다 회의에 가득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하게 놓고 보면, 우리는 미국과 인도간 핵 정책을 승인한 미의회의 결정이 결국은 NPT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인도에 더 많은 핵 개발을 도울 것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마치 전세계 국민들이 침몰하는 배의 하갑판에 출구도 없이 갇혀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안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군수 산업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전화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침체된 세계 경제 속에서 친환경적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핵무기와 이른바 “MD"의 공격적 속성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담론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전쟁의 잔해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58년이나 지속된 한국전쟁과 같이 잘못된 오류와 오판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된 군사 동맹 및 재래식 군대의 확대가 핵폐기, 평화 및 통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꺾게 될 것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제공격을 금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UN 헌장을 준수해야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여러분 모두와 이 중대한 일에 동참하는 바입니다.